

#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촌경제 키운다

### 7개월 만에 3만3683건, 5억700만원 수익 창출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도입된 마을 전자상거래가 지역 소규모 농가들의 새로운 수익창출과 함께 침체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3만3683건, 5억7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마을전자상거래는 지역 농가 6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들은 육선과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토어 등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약 5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사업비 2억 9천6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배 가량 확대된 규모로 참여 농가들은 이를 활용해 농·특산품은 물론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하고 상품 판매시 발생되는 최대 15%의 수수료와 농가 당 최대 100만 원의 택배비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농가를 지원해줄 IT마을도우미 20명을 모집하고 72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입점 컨설팅과 스튜디오 촬영 등을 지원하고, 익산시는 조기 소진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올 연말까지 오픈마켓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추진된 마을 전자상거래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원을 확대해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개최한 시간여행축제 수익금으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 군산시, 신규임용직원 직무 적응 현장 교육

### 새만금비즈니스컨벤션센터서 팀워크 체험·재무설계 등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공직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신규 임용 공무원 135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군산새만금비즈니스컨벤션센터(GSCC)에서 2019년 신규임용자 직무 적응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교육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군산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생활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임무, 복무교육,

성공적인 직장생활 등 기본 소양교육과 우리시를 알아가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공직생활의 기본이 되는 복무제도, 공직가치 청렴교육 등 기본적인 직무교육과 스마트한 시민의 보고습관, 새내기의 재무설계, 홍보의 역량강화교육 등의 전문 강사의 특강은 물론 팀워크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또 ‘우리지역바로알기’ 과정을 통해서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 특강과 근대문화역사거리 현장체험 견학을 통해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와 근대문화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산 만드들의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시간 등 알차게 진행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우리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며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취·창업 일자리마당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문 섭)는 지역 내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2019 취·창업 일자리마당을 개최한다.

12월 3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홍보에서부터 면접,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해 기업의 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우수사례 전시 및 19년도 창업자 컨설팅을 통해 지원사업 공유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채용 또는 간접채용을 위해 1대 1면접이 이루어지며 자문진로 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및 취업컨설팅의 부대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행사에 사전접수 및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참여신청서를 지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사전접수자에 한해 오는 28일(목)에 참여기업설명회와 무료증명사진촬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교육이 실시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보리진포 동네빵집 보리빵 후원

###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 양육생활시설에 전달 예정

군산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개최한 시간여행축제 수익금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다름 아닌 주인공은 군산시 보리진포 동네빵집(대표 홍동수)으로 지난 22일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리빵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리진포 동네빵집은 보리민주, 보리팔방, 보리카스테라 등 5종의 보리빵이 후원됐으며 복지센터 관할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 양육생활시설 청소년 1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동수 대표회장(군산시지부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데 특히 한창 자라날 청소년들

이 때서운 칼바람에 더욱 소외될까 걱정되어 이번 보리진포 동네빵집 사장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후원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보리빵을 먹고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보리진포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흰찰쌀보리로 빵을 만드는 동네빵집을 위한 공동브랜드이다”며 “보리진포 동네빵집의 수익은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보리 생산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 군산농업과 상생하는 보리진포 동네빵집을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2019년 신규임용자 직무적응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군산 여성농업인, 농촌자원개발과정 동계 아카데미 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여성농업인의 신소득원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19 여성농업인 농촌자원개발과정 동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군산시 거주 여성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꽃차 소믈리에 과정’, ‘수제청 디저트 창업 과정’ 총 2개 과정이 진

행되며 영농기술 외 특화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생들은 ‘꽃차 소믈리에 과정’을 통해 꽃차의 효능 이론과 천일홍·국화·팬지꽃 띄움차 등 꽃차 실습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수제청 디저트 창업 과정’에서는 감기 예방에 좋은 다양한 수제청 제조 실습 및 활용법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원예·과수 농업을 6차 산업화로 연결 및 활용한 교육으로 군산시 창조농업 소재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지원과 김미정 과장은 “농가 소득 격차의 심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여성농업인 동계 아카데미 교육 외에도 농촌자원을 융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장애인일자리 근로자 격려

행복도시 군산시는 장애인일자리 참여 현장 근로자 93명에 대해 겨울용 패딩조끼 및 핫팩 등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월동용품 지원했다.

시 관계자들은 혹한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위해 겨울용 패딩 조끼 및 핫팩을 배부하며 근로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피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담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중간보고회서 최적지 확인

익산시는 지난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 설립·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강영석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 및 관련 교수 등은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에 최적지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지금까지 중간 검토 결과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부지 선정과 연관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추가

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은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를 위해 의료·힐링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이달 말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익산시 유치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